

키르기즈의 친구들 9월 소식

지난 한 주간 연합신학교 20주년과 저희가 섬기는 새언약교회의 목사안수 예배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언약교회를 설립하고 함께 동역했던 쿠반-아이리따 선생님네도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안수 예배 시 2002년에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2살 소년이 15년 뒤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시작한 말씀으로 현지 사역자, 외국인 사역자들, 그리고 새언약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을 보면서, 또 다른 10년을 소망해 봅니다.

1. 신학교 및 신약 주석 번역 작업 신약 주석 시리즈의 6번째 책인 '갈라디아서 & 데살로니가전후서'가 지난 달에 출간되어 이제 13번째 시리즈 중의 6권이 최초의 키르기즈어 주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감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한 두 권 더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동역자인 엘리자는 이곳 키르기즈 기독교학생회(IVF) 대표간사의 부인입니다. 신학공부를 위해 6개월 정도 후에야 다시 동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교회의 사모인 크얌이 계속해서 주석의 성경 본문을 세밀하게 검토하며 권별로 작업하는 가운데 있고, 최근에 연합신학교에서 교수사역을 하는 한국 사역자(정이쉬)가 합류하여 감수 작업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로빈 교수와 저와 둘이서 주로 했던 감수 작업에 동역자가 생겨서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번역팀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작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학기부터 카라콜이라는 지역에 작년에 개원한 연합신학교의 분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교학을 하기로 했는데, 귀납적 성경연구를 기반으로 성경자료들을 활용해서 본문에 충실한 강해에 익숙해지도록 도우려 합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오쉬 지역에 분교를 운영해 왔었는데, 지방에서 계속 운영할 사역자가 바뀌고 떠나는 바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카라콜 지역에 새롭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강사들을 연결하여 분교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지 교회(새언약 교회) 현지 사역자 벡뚜르 전도사는 지난 소식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제가 이곳 키르기즈에 왔을 때(2000년) 벡뚜르 목사가 12살 이었습니다. 세명의 누나들과 함께 교회에서 잘 자라났고, 지난 2006년에 연합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현재 벡뚜르 목사의 사모인 디아나도 같이 연합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때 3년 내내 제가 가르쳤던 관계로 아주 감격스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만 29세이지만 벌써 세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아멜라 5살, 2살인 쌍둥이 자매 아에리따, 술람미따). 최근에 생활이 어려운 젊은 부부의 어린 동생이 고아원 시설에서 자라고 있었는데(아르뚜르 7세) 벡뚜르 목사가 입양 수속을 밟아 네 번째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회도 잘 하고 있지만 마음도 특별한 이들 벡뚜르 목사가 안수를 받은 이후 더욱 목회에 전념하여 키르기즈의 귀한 사역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육원(알라토, 카라발타, 하디차)** 알라토 보육원은 남자 아이들의 숙소에는 창이 없었고, 거실에 있는 창은 바깥쪽에 놀이방을 만드느라고 창을 가려서 채광이 거의 없는 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기간동안 숙소와 거실, 그리고 거실로 연결된 복도 쪽의 벽을 뚫어서 창을 내고 문을 내는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의 공사기간 동안 이스쿨 호수 지역에 보모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약 2개월간 옮겨서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쿨 호수 지역은 해발 1,500 미터라서 이곳 비쉬켈 지역보다 약 5~10도가량 낮아 뜨거운 여름을 피해 잘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원없이 물놀이도 하면서 지냈고, 이곳 보육원의 공사도 잘 마무리 되어 지난 주 새 학기가 잘 시작되었습니다.



비쉬켈에서 70km 정도 떨어진 카라발타 지역에 있는 행복보육원에도 지난 여름 기간동안 바닥과 벽체의 페인트 작업, 그리고 외부에서 화장실 수리, 화단 정비를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라리사 전도사님네 교회에서 한주일에 한번씩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복음 증거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연결된 시골지역으로 방문사역을 하는 현지인 리더들로 구성된 '키르기즈 모바일 팀'을 통해 일 년에 2~3회는 정기적으로 이곳 보육원을 방문하면서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팀들의 지속적이며 지혜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지 친구 & 가족 스케치** 나스हत은 어머니와 동생이 올해에 통신과정으로 공부하던 연합신학교의 신학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쉬켈에서 자동차로 6~7시간을 가야 되지만, 1년에 두 차례씩 2주간의 집중과정을 포함한 3년의 통신과정의 먼 여정을 마친 이들에게 신학교 졸업은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시골지역에 살고 있는 나스हत의 어머니는 믿는 사람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던 아버지도 몇 년전 부터 함께 참석하다가 지금은 연합신학교 통신과정에 2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스हत은 시장에 옷 수선가게를 하면서 수선과 의상제작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 이미 통신과정으로 신학도 공부한 상태입니다. 이들 나스हत 가족이 등록된 교회가 없는 탈라스의 시골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지은, 지아)은 휴학 후 이곳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주말한글학교에서 중학교1~2학년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고, 지아는 저희 단체의 드림아카데미 한국어 교실의 한국어 교사로 일주일에 삼일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라서 자녀비자로는 해당이 안되고, 비자문제도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자를 위해 국립대에 등록하여 약간의 수업도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휴학 기간 동안 잘 쉬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